

장진기 / 김은경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소식

P.O.Box 0332, Kampong Cham, Cambodia

Tel: 855-97-807-1720(장진기) / 855-10-301-602(김은경)

E-mail: changjinkee@gmail.com / keksk21@gmail.com

070-7569-9088(인터넷전화)

2018년 3월 5일
31 번째 선교편지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가정과 사역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선교동역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캄보디아의 총선이 있는 해(7월 29일)입니다. 지난 해, 해산이 결정된 제1야당(구국당)에 대한 복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혹여 총선결과에 따른 후 폭풍이 다시금 불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혹 이번 여름 캄보디아로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가급적 총선의 시기를 피해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간의 소식을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전합니다.

☞ 교회사역

[예배의 분리] 그간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했던 예배의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를 1부(어린이)와 2부(청소년&성인)로 나누어 드리니, 예배가 전보다 내실화된 예배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주일의 일정이 전보다 조금은 더 바빠졌지만, 그것이 힘들다기 보다는 섬기고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짐에 감사하고 전보다 활기찬 교회가 되어감에 감사합니다.



[성경공부] 주일예배 후,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전, 아이들과 둘러앉아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천지창조부터 복음 제시를 위한 12주 과정의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고 대화하며 예배에서 못 다하는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암송의 시간에 글을 못 읽는 몇몇의 아이들을 붙잡고 반복하여 암송할 때면, 읽으면서 함께 성경도 암송하게 되니 저 또한 말씀으로 언어로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동시에 사역의 또 하나의 과제가 생긴 것 같아 기도로 나아갑니다. 몇몇의 아이들이지만, 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성서공회에서 출판하는 "아까라감" 교재로 이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부탁 드립니다.



[부활절 나눔행사(준비) 그리고 마을사역의 방법 개선도모] 매년 부활절이 되면 마을후원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 후원교회의 한 성도님의 후원(의류, 비타민 등)으로 전보다 풍족한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늘 사역의 동역자로 섬겨주시는 모든 선교동역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부활절에도 나눔 행사를 계획하며 필요에 따라 공급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이번 나눔 행사에서는 줄 수 있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눔 행사를 필두로 마을사역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법이 아닌 복음전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사역이 되고자 지혜를 구합니다. 효과적인 복음전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오니 위해서 함께 기도부탁 드립니다.

☞ 학교사역(현지학교 지원 & 언어학교 & 도서관 사역)

[The Dream 후원물품 지원] The Dream을 통해 대형모니터(50인치)를 지원받아 후원중인 현지학교와 “성광고아원”에 기증하였습니다. 후원을 통해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또한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현재 후원중인 학교가 불교재단의 지원으로 신축교사를 건립 중입니다. 신축교사가 완공이 되면 그 안을 채울 여러 기자재들이 필요한데, 바라기는 그 안을 채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불교의 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색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어교실] 한국어교실 2기를 시작한지 어느덧 3달이 되어갑니다. 이전처럼 ‘호기심’과 ‘장난’이란 거품이 빠지고 나니 최종적으로 5명의 아이들만이 남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 중 3명의 아이들이 교회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며 사역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한국어교실을 진행하면서 복음전도의 도구로써 언어교실이 되기를 소원했는데, 오히려 그들 자신이 나서서 그 연결고리가 되기를 힘쓰는 모습에 새삼 성령님의 사역에 수저 하나 얹어놓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기고 높이는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서관 설립을 위한 준비] 도서관 사역을 준비하며 1차 계획으로 틈틈이 도서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인 선교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캄보디아 내에 좋은 도서를 찾고자 분투 중이었는데, 최근 한국과 미국 등지의 좋은 도서들을 번역하여 출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책들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현지학교는 도서관이 있지만 읽을 책이 없고, 선교사님들의 센터에는 책은 많지만 ‘한국어’ 혹은 ‘영어’ 책이 대다수라 읽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이들에게 그 꿈을 선사할 수 있는 좋은 도서를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NGO(단체명: The Dream Cambodia) 설립과 VISA 관련사항(Work Permit)

[설립 진행사항] NGO설립을 진행한지도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보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정부의 NGO관련 정책이 부정적인 현 시점에서 7월 말 있을 총선과 맞물려 상부의 눈치를 살피는 공무원들로 인해 설립의 시기가 기존의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 조속히 NGO 설립이 결정되어 사역에 또 다른 창구가 열릴 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Visa & Work Permit]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Visa & Work Permit'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몇 일전, 단속에 앞서 지역 담당자들의 사전예비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정기간을 두고, 관련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속히 NGO가 설립되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Visa와 Work Permit 관련한 사항들이 NGO 설립을 통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 가정의 소식

[지민이의 건강검진] 4월 초, 지민이의 정기검진 일정으로 3월 말, 임시 귀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일정은 지민이의 더딘 성장원인을 찾기 위한 일정도 포함하고 있어 전보다는 조금 더 긴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검진에서 더딘 성장의 원인을 찾기 위해 내분비과(호르몬), 신경외과(뇌), 유전과의 추가 검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활의학과에서도 행동발달에 대한 추가 검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Homeschooling] 지아와 지훈이가 홈스쿨링 각 학년 과정(지아: 3학년 / 지훈: 2학년)을 마무리하고 다음 학년 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성적처리와 교재배송 등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배송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배송 루트를 모색하여 진행하는 것이기에 배송과정에서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기도제목

- [교회사역]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대상에 맞추어 분리된 예배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예배, 든든히 서가는 교회되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언어교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접촉점의 언어교실이 되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학교사역이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하는 이번 사역이 그 초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 [학교지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진행되는 모든 활동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 [가정을 위해]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 속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정되게 하옵소서.